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놀이시설 조성

임실군, 도내 유일 국토부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선정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치즈테마파크에 제2장미원 조성 등을 겸비한 대규모 놀이시설이 조성된다.

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확보, 도비 10억원과 군비 40억원, 민자 35억원 등 총 1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플레이랜드인 놀이테마파크를 만든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드림랜드와 드림레저, (재)임실치즈테마파크와 협력하여 2025년부터 4년간 추진된다.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지역 활성화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인구 감소 지역 86개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8개 사업이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임실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군은 준비 단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다양한 사업 구상에 노력했다.

특히, 전북연구원 지역혁신정책실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한 농촌테마공원 일원에 임실치즈 체험과 휴양, 다양한 놀이문화가 어우러진 체류형



임실군의 대표 관광지인 치즈테마파크에 제2장미원 조성 등을 겸비한 대규모 놀이시설이 조성된다.

'민관 상생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숙박시설과 제2장미원, 카페 등의 복합 공간인 플레이힐이 조성된다.

또한, 플레이빌 실외 놀이테마파크를 구축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며, 플레인랜드의 마케팅과 이벤트 유치 등으로 지역 경제와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기본계획 수립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

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관광업을 고도화하고, 지역 일자리와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테마파크의 기존 인프라에 더해 어린이를 동반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차별화된 시설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생활 인구 증가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본격 운영

남원시보건소, 9월 30일까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남원의료원)과 협력하여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 조치는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전산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폭염 건강 피해를 감시하여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서 온열질환 주의와 예방 활동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



이다.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 온열질환자 수는 최근 5년간(2020년 2명~2024년 17명)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발생 장소의 78.9%

가 야외(논·밭 등)에서, 신고 환자의 76.3%가 남성, 연령대로는 50대(68.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예방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물) △시원한 곳에서 자내며(그늘),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휴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남원시 보건소가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기간 수집된 온열질환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 될 예정이며, 지난 발생 현황 통계를 감시체계 연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희연 전염병관리팀장은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밝히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대비 건강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시민 임실군수, 음식점가 조성사업 현장 점검

심 민 임실군수가 지난 14일 임실시장 내 조성 중인 '임실전통시장 맛잇길' 음식점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음식 상가 준공을 앞두고 사업 추진 현황과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심 군수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실내외 주요 시설물을 직접 점검했다.

임실전통시장 맛잇길 음식점가 조성사업은 임실읍 이도리 233-4번지 일원에 지난 2021년부터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853㎡에 단층 규모로, 음식 상가 6개소, 공중화장실,

육상 공용주차장 15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되어 상가 입주자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 준공식과 음식 상가 오픈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음식 상가가 완공되면 방문객이 많이 찾는 시장, 머물고 싶은 특성화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활 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실시장과 상생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음식 상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대상 매트리스 청소사업 추진

순창군이 저소득 거동불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매트리스 청소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5월부터 11월까지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리스 청소 및 소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1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매트리스 청소 전문업체가 각 가정을 방문해 침대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구당 80,000원 상당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천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읍면별 수요조사와 대상자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군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 유기농 캐모마일 제품화

바이오 산업연구원,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제품 생산 공급

남원시 바이오 산업연구원은 남원에서 재배되는 유기농 캐모마일을 소재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여 제품 생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17년부터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을 고부가가치 화장품 원료로 개발해 왔으며, 남원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유기농 캐모마일은 미백과 보습, 항염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화장품 원료로 가능성을 보였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남원에 소재한 유기농 화장품 원료 전문업체 '투바마 바이오랩'과 협력해 남원 유기농 캐모마일을 화장품 원료로 가공·생산하여 화장품기업에 공급하고 제품생산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투바마바이오랩은 남원 유기농 캐모마일을 이용하여 △유기농 매트리카리아쫓수 △유기농 마트리카리아쫓수 △유기농 콤플렉스 카밍 △유기농 마이크로멜트 콤플렉스 카밍 등의 다양한 화장품원료를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출시된 △유기농 마이크로멜트 콤플렉스 카밍 화장품 원료

는 산업연구원의 피부장벽강화, 항염진정, 보습 효능평가를 거쳐 여드름 피부적합성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체 적용 시험을 마쳤다.

최근 산업연구원과 투바마바이오랩은 2024년 국내 대한화장품학회와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화장품학회에서 남원 캐모마일 화장품원료의 우수성을 발표하며 글로벌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연구원은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농가와 수요 기업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산업연구원 이영철 원장은 "남원의 유기농 캐모마일이 프리미엄 화장품 원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한국축제박람회'에 참가해 순창 관광의 특색을 알리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순창군, 한국축제박람회서 관광 홍보

순창군이 1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한국축제박람회'에 참가해 순창 관광의 특색을 알리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주)동인전람이 주최하고 (사)한국축제포럼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 5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의 대표 축제와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대규모 박람회다.

순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관광협회와 협력해 전북도 공동 홍보관을 운영, 순창 고유의 관광명소와 지역 대표 축제를 널리 알렸다. 그 중 강천산 군립공원, 양지천 생태쉼터, 용골산 하늘길 등 자연을 기반으로 한 힐링 관광지를 중심으로 순창의 관광 매력을 강조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조했다.

또한 오는 가을 열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집중 홍보하며, 전통 장류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진 순창만의 특색 있는 축제 콘텐츠를 부각시켰다.

현장에서는 툐렛 이벤트를 운영해 다양한 순창 특산품을 제공,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더하고, 박람회를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층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박람회는 순창 관광의 매력을 직접 소개하고 전국의 다양한 여행 수요와 마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SW교육프로그램 초·중·고교생 수시 모집

남원시는 청소년의 SW·AI 역량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SW미래채움전북사업인 찾아오는 SW 교육프로그램 신청자를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리산권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한다.

교육프로그램은 상시 진행되는 자율 체험과 평일 및 주말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자율 체험은 데이지 빔을 사용하는 스윙 헬리자, GEO 로봇을 이용한 축구 경기, AR/VR 체험이 있다.

또한 태블릿을 활용해 재미있고 쉽게

블록 코딩을 배우는 아미코딩,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AI크리에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가상공간 안에서 게임을 제작해보는 메타버스, 로보틱스가 있다.

남원시 이영미 홍보전산과장은 "학생들이 정보기술(IT)을 쉽게 배우고 SW미래채움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전통보장구 안심보험 보장 내용 강화

남원시가 거동 불편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노인 전통보장구 안심보험 보장 내용을 5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내 장애인 전통보장구 및 스쿠터가 최근 5년간 492대가 보급되어 이와 관련된 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전통보장구 안심보험' 제도를 2023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보상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사고당 보상한도를 당초 5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이 전국 100개 지자체 중 사고당 보장금액을 가장 높게 상향했다.

지일 대상은 전통휠체어, 전통스쿠터 등 전통보장구를 이용하는 남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남원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사고 후 보험 상담 및 접수가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https://wheelchairkorea.com>) 또는 전용 상담 전화(02-2038-0828→ARS 1번)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지역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29명 합격

남원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2025년도 제1회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29명이 합격했다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지역 내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수준에 맞춘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 수준별 맞춤형 교육 지도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와 교재 등 다양한 학습 자료를 지원받으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더해져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제2회 검정고시 대비반은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민·관 참여 의료기관 집중 안전점검

남원시는 지난 14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의료기관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이력을 기준으로 요양병원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점검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와 보건소를 중심으로 남원소방서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적정 여부 △의료법상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소방 및 전기·가스 등 위험요소 관리 상태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고, 조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기관에 보수·보강 계획을 요구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